

아이디어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고충이 있는 곳에 발명이 있다

무좀으로 고생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치료 방법을 듣고서 여러가지로 실시해 본 사람이 있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한 끝에 발가락끼리 접촉되지 않도록 하는, 즉 발가락 사이의 습기를 적게 하면 많은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리하여 그는 실장갑 모양의 양말을 만들어 보았다. 스스로 사용해 본 결과 발가락 사이의 습기가 적어졌으며, 더욱이 무명으로 만든 양말이어서 습기를 빨아들이는 효과도 커서 무좀 치료에 많은 효과를 나타내었다.

보통의 양말은 발가락 모두가 접촉되지만 새로 고안해 낸 양말은 끝쪽이 마치 장갑 모양으로 되어있어서 발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통풍이 잘 되고,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리 잘 팔리지 않았다.

- ① 무명으로 만든 것이므로 기분이 좋고,
- ② 무좀의 치료에 좋고,
- ③ 보통의 신발뿐만이 아니라 끈이 달린 슬리퍼를 신는데도 편리하고,
- ④ 발가락의 습기가 양말을 통하여 증발되므로 기분이 상쾌하다.

라는 사실이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많이 팔리게 된 것이다. 별 것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던 고안자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손에 끼우는 것을 그대로 모방하여 발에 신도록 한 간단한 아이디어였으나 뜻밖에도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고충”은 발명 힌트에 직접 이어지게 된다. 단지 고민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를 스스로 생각하여 실행한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뜻밖에도 우리 둘레에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이 또한 발명으로 이어지는 것이 많다.

아이디어 엔지니어를 육성하자

기업이 신제품을 만들어 내어 발전시켜 나가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게 된다. 그 중에도 지금부터 중요한 일은 기술분야의 인재를 육성해야 할 일이다. 것도 한갓 기술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 엔지니어」(신제품의 발명을 할 수 있는 기술자)를 길러나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모 공업사는 금속 마찰식 무단변속기의 발명으로 일약 유명한 회사로 등장하였는데, 이 무단변속기 외에도 사회의 니드(요구)에 적용하는 몇 개의 특허와 신제품을 순차적으로 개발하였다. 그 결과 이 회사는 급속도로 성장하여 “아이디어 공업사”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

이 회사의 경영자는 발명 연구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의 요령」을 기업 조직 안의 후배들에게 전수시키는 어려움에도 도전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다. 즉 아이디어 엔지니어를 육성하여 기업 능력으로 정착시킨 것이다.

그 결과 지난 8년 동안에 51명의 기술자가 무려 20여 건에 가까운 공업 소유권을 출원하게 되었고, 개발한 신제품은 수십 건이나 된

“

단지 생각나는 발상으로 신제품의 개발을
해 보았자 그것은 선견이 없는 아이디어에서
생겨나는 상품으로 판매수요는 그리
기대되지 않을 것이다.

”

다고 한다.

이 회사의 경영자는 「신제품 개발에는 경험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단지 기술이나 공학의 공부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맞추어 인생철학, 정신력, 심리작용 등에 의한 철저한 자기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그 점에서 일반 샐러리맨 기술자와는 약간의 이질적인 생활방식이 요구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일반 종업원은 일종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을까? 생각되었으나, 「일단 그 길에 발을 들여 놓으면 골프나 당구 같은 오락보다 더욱 즐거워져서 이것이야말로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역설하였다.

단지 생각나는 발상으로 신제품의 개발을 해 보았자 그것은 선견이 없는 아이디어에서 생겨나는 상품으로 되어 판매수요는 그리 기대되지 않을 것이다.

중소기업이거나, 대기업이거나, 이 아이디어 엔지니어를 육성함으로써 유니크(독특)한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으며, 기업 발전이 기대될 것이다.

물론 인재 양성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독특한 그 기업에 합당한 아이디어 엔지니어를 갖추고,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제품을 많이 생산해 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야말로 저성장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기업의 무기가 될 것이다.

끝까지 파고 들어가 생각해 본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입는 일은 거의 없지만, 부인들의 경우는 그렇지도 않다. 경사 때나 흥사 때나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설날 등에도 역시 한복을 입는 일이 많다. 한복을 입었을 때 가장 곤란한 문제는 옷깃이 비뚤어지지 않도록, 또는 옷고름의 고가 비뚤어지지 않도록 정확히 매는 문제이다.

한 때는 저고리나 두루마기 옷고름 대신 단추로 해결하는 문제가 등장하였지만 한복의 품위가 좋지 못했음인지 그다지 보급되지 못했다. 그러면 이 옷고름의 모양을 갖춘 별도의 부속품으로써 호크를 다는 방법은 어떨까? 끝까지 깊이 생각한다면 무슨 좋은 방법이 나올 것같지만...

하여간 어떤 일이든지 중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뜻밖에도 간단하고도 좋은 방법이 나올 것이다. ♣

상표와 브랜드 (Trademark and Brand)

金 徹 洙 변리사 저
한국발명특허협회 발행
255p, 8,000 원